

호남고속철 2단계 착공...무안공항 접근성 획기적 개선된다

철도공단, 3개 공구 시공회사 선정 다음달 착공키로 전남도, 완공 시기 앞당겨 2023년 개통 정부와 협의

국가철도공단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시공회사를 선정, 올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완공이 오는 2025년까지로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에 따라 전남도는 2년 앞당겨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정부부처와 협의 중이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전체 구간 중 미연결로 남아있던 고막원부터 목포 임성까지 43.9km 구간을 조기개통 등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7개 공구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총 7개 공구 중 터키방식으로 추진한 3개 공구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지난 13일 선정됐다. 각

공구별 적격자는 ▲2공구(함평 학교읍-무안읍) 등 부건설(주) ▲4공구(무안 현경-광운면) 대립산업(주) ▲5공구(무안 망운-정계면) (주)태영건설 등으로 이들 업체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됐다. 업체들은 입찰 시 제출한 우선시공본(패스트트랙)에 대해 오는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일반공사로 발주된 1·3·6·7공구 등 나머지 4개 공구도 오는 24일 개찰된다. 입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과 동시에 착공이 이뤄진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은 무안공항 주변 생태환경 및

자연경관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항역의 동선을 공항과 일체화시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그동안 호남고속철도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체구간 중 1단계 총복 오송부터 광주송정 182.3km 구간은 지난 2015년 4월 신설 철도로, 2단계인 광주 송정부터 고막원 26.4km는 기존선을 개량해 지난해 6월 개통됐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2단계를 당초계획 보다 2년 앞당긴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무안공항의 교통접근성이 대폭 확대돼 충남 이남지역을 비롯 경남권, 전남 동부권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전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목포까지 이동 시간이 2시간 11분대로 단축된다"며 "무안국제공항을 이용중인 외국인들의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양질의 철도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금동관, 옹관에 봉인 퍼포먼스 2020 영산강유역 마한 문화포럼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15일까지 진행됐다. (왼쪽부터) 정재숙 문화재청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신정훈 국회의원이 금동관과 금동신발을 마한의 거대한 옹관에 넣고 있다.

잠들었던 고대 해상왕국 마한을 깨우다

서울서 '마한문화포럼' 열려

전남도가 고대 해상왕국 마한역사문화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020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했다.

서울마당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잠들었던 고대해상왕국 마한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전남도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전남도문화재단이 주관했다.

행사 첫날에는 '고대해상왕국 마한을 품은 전남, 새로운 기상과 도약'이라는 비전선포식을 시작으로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비전선포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신정훈 국회의원, 박민서 목포대 총장, 마한문화권 발전협의회 11개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문체부장관과 김

해시장은 온라인 영상으로 축하했다.

오프라인투브와 서울마당 대형전광판으로 생중계된 비전선포식에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기증한 대형옹관 재현품을 활용해 잠들었던 고대 해상왕국 마한을 깨우고 도민의 염원을 담아 옹관을 봉인하는 독특한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봉인된 옹관은 전남도청에 전시해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둘째 날은 마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홍보를 위해 '전남의 마한'과 관련된 모든 주제로 대학생 학술 및 웹툰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세계 각국의 주요 문화권 보존 정비와 활용사례'를 주제로 포스터 학술발표가 진행됐다.

행사기간 동안 서울마당 야외에는 마한의 대표적인 유물인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비롯 나주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 대형옹관, 토기 등이 전시됐다.

전남도는 마한 관련 현안사업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 도내 11개 시·군 및 8개 유관기관과 마한문화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마한문화 위상 확립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역차원의 노력을 전개해왔다. 이같은 결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제정돼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향후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전남도는 문화재청에 정책건의할 마한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영암 내동리 쌍무덤 등 3년간 10개소를 국가사적으로 승격시킬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그동안 잊혀진 고대 마한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마한문화권 개발은 전남의 미래발전 전략인 블루 이코노미 중 블루투어의 핵심 축으로, 마한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세계인과 국민이 즐길 문화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지급

0.1ha 이상 재배 12만3000명

전남도가 올해 잇따른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0.1ha(1000㎡)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 해당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농지도 예외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급 기준은 시군별 벼 재배농가수와 벼 재배면적 형태로 지급한다. 올해 전남 지역 12만3000여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평균 지급단가는 지난해 수준인 64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정부가 지원한 공익직불금과 별도로 전라남도가 지원중인 사업비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비롯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의 지속·유지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했다.

전남도는 벼 재배면적과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상향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1년 ha당 평균 44만원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ha당 평균 64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2001년 180억원을 지원했던 사업비가 지난해 8550억원까지 늘었다. 이는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고 있는 8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수산물식품 온라인 수출상담 1117만달러 계약

전남도가 해외 7개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펼친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에서 1117만 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달성했다. 전남도는 지난 12일 코로나19에 대응해 미국, 일본, 중국 등 7개국 16명의 해외 바이어와 도내 수출기업을 이어준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전남지역 39개 농수산물 수출업체가 참가했으며, 해외 바이어 5명이 전남 6개 수출기업과 총 1117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해 온라인 수출상담의 효용성을 입증했다.

주요 계약실적으로 순천 창대에프앤비가 500만 달러, 나주 골든힐이 500만 달러, 장성 네시피에프 앤비가 100만 달러 등을 계약했으며, 이밖에 3건

17만 달러의 계약도 이뤄졌다. 수출상담회에서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수출잠망이 높은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들과 이메일, 위챗, 섀플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상담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수출상담회에 전남 농수산물품 해외 상설 판매장 운영사와 새로운 에이전트 등 바이어를 포함해 진행했다. 특히 전남도는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의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을 위한 현장기동단을 운영했다. 수출 통관 절차 및 수출품목 코드 안내, 수출 애로사항 컨설팅 진행 등 수출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과정이 참가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에 황풍년씨 내정

광주시는 "지난 13일 광주문화재단 제4대 대표이사로 '전라도 닷컴' 발행인 겸 편집장인 황풍년(56)씨를 내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최종 2명을 추천받아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황씨를 낙점했다.

황 내정자는 순천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남일보 기자, 광주드림 편집국장, 아시아문

화원 이사(비상임)를 지냈다.

황 내정자는 전라도 닷컴을 20년 동안 펴내며 전남의 가치를 알렸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기획·실행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황 내정자는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12월 중 이용섭 시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062) 605-1115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56
		성경연구학과(Th.M.)	10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6
		상담심리치료학과(D.C.S.)	7
		코칭심리학과(D.Psy.)	7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5
		휴먼서비스교육학과(D.Ed.)	12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14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15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8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 원서접수: 2020. 11. 17(화) ~ 25(수)
· 전형일: 2020. 11. 30(월) 오후 2시 30분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 원서접수: 2020. 11. 30(월) ~ 12. 9(수)
· 전형일: 2020. 12. 11(금)/12(토)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062) 605-1115